무의도인이 부처님의 어머니

〈無依道人〉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㉔ 정견(正見)

누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그대는 다만 언제 어디서나 범부의 경지에도 들어가고 성인의 경지에도 들어가며, 오염된 데도 들어가며 청정한 데에도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 국토에도 들어가며,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비로자나의 법계에도 들어가서 어디서나 모두 그 국토를 나타내며, 이루어지고 머물고 부수어져 없어지기도 하느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큰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셨지만, 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며, 그 태어나고 죽는 것을 찾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다. 문득 태어남이 없는 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를 다니다가 화장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이어서 다 실다운 법이 없는 것을 죄다 보느니라. 오직 법을 듣고 있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바로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의지함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라. 만약에 의지함이 없는 것을 깨달으면 부처도 또한 얻을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보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참되고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참되고 올바른 견해'가 무엇이냐, 정견(正見)을 묻는 질문이 다시 나왔다. 정견이란 팔정도에 처음 나오는 불교 기본 교리 용어에도 있는 말이지만 선에서 말하는 정견은 실참(實參)을 통해 얻어진 정안(正眼)으로 보는 견해다.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 하기도 한다. 임제는 정견의 물음에 '의지함이 없는 도인'을 들어 답한다. 이른바 무의도인(無依道人)은 임제가 내세우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의 또 다른 이름이다. 주체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본질 그 자체로서 어디에나 통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것이다. 이것이 시공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일체 물리적 현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생사(生死)에도 자유롭고 열반(涅槃)에도 자유로운 것이다. 한정 지을 수 없고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라고 답해 준다.

정견을 강조하는 선(禪)에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금기시킨다. 다시 말해 지해(知解)속에 정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종취(宗趣)를 터득해야 정견이 될 수 있다. 흔히 종통(宗通)이라 하는데 사량분별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직관적인 통찰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해를 부정하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지해를 두지 말라.(入此門來 莫存知解)"고 하였다. 또 황룡사심(黃龍死心)은 "안다는 한 글자(知)가 온갖 화를 불러오는 문(知之一字 衆禍之門)"이라 하였다. 선을 방해하는 모든 화근이 알음아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의 임제의 법문에는 〈화엄경〉 용어가 나온다. 미륵누각이나 비로자나법계 그리고 화장세계가 〈화엄경〉 용어다. 법신 비로자나는 깨달음 자체를 의인화하여 나타낸 말이다. 선의 견성(見性)이 비로자나 법신을 보는 것이다.

'의지함이 없다(無依)'는 것은 마음에 어떤 관념도 만들어지지 않는 무념(無念)의 경지이다. 마치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다'는 말처럼 어떤 대상을 의식하면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 머무는 바가 되어버린다. 머무는 마음이 되면 자동적으로 집착이 생기게 된다. 불교 수행에서 집착을 끊으라는 말이 각종 경론이나 어록에 무수히 나온다. 임제는 수행을 할 때도 수행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도(道)를 닦는다는 생각을 하면 도는 닦아지지 않고 번뇌만 다투어 일어난다 하였다.(若人修道道不行 萬般邪境競頭生)

'의지함이 없는 것(無依)'을 깨달으면 부처도 얻을 것이 없다 하였다. 이는 무소득의 경지를 말한 것으로 부처가 되면 부처가 없다는 말로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다. 이것이 바른 견해라 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부처님 생각뿐이면 성불할 수 있어



세상 속 경전읽기

㉔ 사종염불(四種念佛)

청화 스님의 법어집인 〈정통선(正統禪)의 향훈(香薰)〉 '제2편 법문의 말씀 3. 실상염불 · 참선 · 삼매'에서, 염불을 1)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의 명호(名號:이름)를 외우는 염불], 2)관상염불[觀像念佛, 부처님의 원만한 덕상(德像)을 관찰하면서 하는 염불], 3)관상염불[觀想念佛.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상념(想念)하면서 하는 염불], 4)실상염불[實相念佛. 실상 곧 진리를 관조(觀照)하는 염불. 붓다의 법신이 비유비공(非有非空)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묘심(妙心)임을 관조하는 염불]의 4종염불로 구분하고 있다.

명호부사의(名號不思議)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 명호는 보통 이름이 아니라 무량공덕을 갖춘 부사의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곧 말로 나타낼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이 신비하고 놀라운 힘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부처님 명호를 꾸준히 외울 일이다.

우리가 붓다의 명호를 자꾸 외워서, 곧 칭명염불을 해서, 부처님 생각뿐이면 성불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중(二重)으로 안전장치가 있다. 첫째 우리가 본래 불성(佛性)을 갖추었으므로, 무명(無明)의 구름을 걷고, 불성의 태양을 드러내면 붓다이다. 칭명염불을 통해 오직 부처님 생각뿐이라면 이미 무명의 구름은 걷힌 것이니 곧 붓다이다. 둘째는 아미타불 48원 중 18원[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의 가피(加被)를 받는다.

세자재왕(世自在王) 부처님 당시 왕이었다가 스님이 된 법장비구(法藏比丘)가, 부처님 전(前)에서 48대원(大願)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하여 아미타불이 되었다. 그 48원 중 18원은 다음과 같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 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

〈佛說無量壽經 T0360_.12.0268a26-a27〉

아미타 나라 곧 극락은 지극한 낙토(樂土)일 뿐 아니라, 바람소리도 물소리도 새소리도 모두 그 국토에 태어난 이들을 필연적으로 성불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다.

4종염불에서 알 수 있듯이, 염불에는 부처님 이름[佛名]을 외우는 칭명염불, 부처님의 모습[佛身]을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觀像)염불, 부처님의 무량공덕[佛德]을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觀想)염불, 실상[진리] 곧 법신(法身)을 관조하는 실상염불이 있다. 붓다를 염(念)하는 것이 염불인데 그 대상이 부처님의 이름, 모습, 공덕, 진리의 4종인 것이다. 여기에서 실상염불은 진리 곧 본래면목을 관조하는 것이니, 염불선(念佛禪)이다.

염불은 곧 염각(念覺)이니, 염불하는 것은 현전일념(現前一念)이 본각진성(本覺眞性)을 각오(覺悟)하는 것이어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것[與佛不二]을 확인하는 공부이고, 부처를 떠나지 않는[與佛不離] 공부이다.

화엄 제5조 종밀의 〈화엄경행원품소초〉 제4권에 4종염불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나 염불은 같지 않아 4종이 있다. 1)칭명념(稱名念), 2)관상념(觀像念), 3)관상념(觀想念), 4)실상념(實相念)이다."[然念佛不同總有四種一稱名念二觀像念三觀想念四實相念]

〈華嚴經行願品疏鈔 第四卷 X05n0229_0280a04〉

여기에서의 칭명념은 4조 도신 대사의 일행삼매를 예로 들었고, 관상념(觀像念)은 〈대보적경〉의 예를 들어 '여래의 소상(塑像)이나 그림을 관하는 것[觀如來塑畫等像如大寶積經]'이고, 관상념(觀想念)은 '여래의 32상(相) 가운데 하나를 관' 하거나, 〈좌선삼매경〉의 예를 들어 '부처님의 전신이 허공에 처(處)한 것을 관하는 것[佛身處在虛空]'이고, 실상념(實相念)은 〈문수반야경〉의 예를 들어 '생멸래거명상(生滅來去名相)이 없는 것을 부처라 하고,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듯이 부처를 관하는 것'이라 하였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⑳ 닦음의 길 10

보시, 자선인가 수행인가?

아주 오랜 시간 남모르게 나눔을 실천해온 불자가 있었다. 언젠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느 기자가 이를 신문에 크게 보도하였다.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다. 그분이 크게 화를 내면서 한번만 더 사람들에게 알리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담을 널리 알리는 것은 기부 문화의 확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크게 화를 내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6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실천 덕목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보시(布施)다. 나눔이 맨 앞에 놓인 것이다. 개인의 깨달음보다 이타행, 즉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시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재시(財施)가 있고 둘째로 붓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법시(法施)가 있다. 그리고 돈이나 지식이 없이도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 무외시(無畏施)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예컨대 따뜻한 말 한 마디나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환한 미소 등이 모두 무외시에 해당된다.

보시는 질적인 차원에서 유주상보시(無住相布施)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로 구분할 수 있다. 유주상보시는 글자 그대로 상(相),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보시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색을 내면서 보시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복이 모두 세어나간다고 해서 유루복(有漏福)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세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을 지으려면 상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청정한 나눔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라밀로서의 보시는 하나를 주면 다른 하나를 얻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리고 무주상보시가 되기 위해서는 삼륜청정(三輪淸淨), 즉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보시하는 사람(施者)과 보시하는 물건(施物),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受者)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정한 사람이 도둑질과 같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니라는 뜻이다. 깨침을 향한 청정한 수행으로서의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열심히 보시했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럴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알아주면 알아줘서 감사한 일이고, 몰라주면 무주상보시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이다. 그러니 서운해 하지 말고 바라밀 공부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중용〉의 지적처럼 "나를 바르게 하면 될 뿐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 필요가 없기(正己而不求於人)" 때문이다.

나눔을 실천할 때 정말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해야지 미안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간혹 나는 이만큼 보시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순간 감사를 느껴야 할 나눔이 오히려 미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때론 미안함을 넘어 미움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보시에도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앞서 언급한 그분이 왜 화를 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분에게 보시는 단순한 자선행위나 비즈니스가 아니라 바라밀, 즉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분의 보시행을 널리 알린 것은 어쩌면 수행을 방해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분께서 보인 화는 보시란 깨침을 향한 바라밀임을 일깨워준 따끔한 경책이었던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